

# 한국 불교의 진가를 일깨워 주다

## 초파일 특집 TV서 만난 서양의 두 불교 석학

세계적인 불교 석학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방극장을 찾았다. 평화인권 운동가 로버트 서먼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와 루이스 랭카스터 UC 버클리에 명예교수는 한국불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혼돈의 시대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줬다.

MBC '뽕큐 경허 禪을 묻다'는 21세기 지성으로 불리우는 서먼(70·뉴욕 티벳하우스 원장) 컬럼비아대 불교학과 교수가 돌아보는 열반 100주년을 맞은 경허선사 이야기다.

"한국을 변화시킨 선각자이자 수행자였던 경허선사의 발자취를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구한말 식민주의 질서가 재편되고 불교가 억압당하던 그때 경허스님에 의해 오히려 불교가 되살아났다는 사실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한국불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열반한지 백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허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서먼 교수는 이렇게 첫 시작을 열었다. 그렇다면 그를 대표시킨 경허스님은 누구인가? 경허선사(1849~1912)는 치열한 구도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으며 서산대사 이후 끊어졌던 이 땅의 선맥을 다시 이어 놓은 한국 선불교의 중흥자다. 서먼 교수

는 경허선사를 대신해 한국 불교의 큰스님 수석사 방장 설정스님, 해인사 율주 종진스님, 해인사 유나 원각스님, 통도사 큰스님 명정스님 등을 만나 경허선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

특히 서먼 교수가 설정 스님과 함께 천장암을 찾은 장면은 인상적이다. 경허 스님이 깨달음을 완수시키기 위해 머물렀다는 이곳은 한 평 반도 안 되는 공간에서 자기도 앉고 눕지도 않고 용맹정진을 하면서

### MBC- '뽕큐 경허 禪을 묻다'

### KBS-특집 다큐 '다르마'

### 한국 불교 발자취를 찾은 학자

### 불법의 메시지 전하는 계기 마련

한국 선불교를 완성시켰다. 서먼은 방으로 직접 들어가 스님의 자취를 느껴보기도 하고 부엌으로 가 방 아궁이에 불을 지피보기도 한다. 그와 함께했던 설정 스님은 "전생에 우리가 어느 절에서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었을 것"이라며 농담반 진담반의 전생 얘기를 던지기도 했다.

이 방송은 선각자로 그리고 실천수행의



세계적 불교 석학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방극장을 찾았다. MBC '뽕큐 경허 禪을 묻다'는 21세기 지성으로 불리우는 서먼 교수(왼쪽)와 KBS 특집 다큐 '다르마'에 출연한 랭카스터 교수.



모범을 보인 스승으로서 시대를 이끌어 갔던 경허선사의 삶을 통해 이 시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시간이 됐다. 또한 선방의 젊은 스님들이 통역없이 교수와 영어로 대화하는 장면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숨은 자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지난해 방영되어 '2012 아·태방송개발 기구(AIBD) 월드 TV상' 인류에 부문 최우수상 '2011년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을 받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킨 KBS 특집 다큐 '다르마'의 재방송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는 팔만대장경의 영문목록을 작성하고 평생을 고려대장경 연구에 바친 미

국 버클리에 교수 루이스 랭카스터가 출연한다. 대열반경을 읽는 교수의 모습으로 시작해 전세계 불자들의 탈레이 낭독이 곳곳에 삽입되며 4부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붓다의 유언 즉 불경을 통해 붓다의 지취 그리고 그의 참뜻을 찾아간다.

해의 석학들은 한국 불교의 자취를 통해 이 시대의 부처님 오심의 참 뜻을 되새겼고,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교계의 지난 5월, 두 방송은 진정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일섭문도회 첫 회원전...불교 미술 확산 기대

조각 단청 등 100여 작품 전시  
6월 13~19일 서울미술관서

점의 불교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석정 스님의 지장탱은 지장보살과 좌우보처인 보명존자와 무독귀왕 등을 통해 제대 권속을 표현했다.

우리나라 근세대 불교 일섭스님의 후학들로 구성된 '불교미술 일섭문도회' (이하 일섭문도회 회장 전연호)가 6월13~19일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첫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회화 조각 단청 공예 등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일섭문도회는 불화와 단청, 조각, 고건축 등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 현역작가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석정스님, 전기만, 조정우, 양호호, 이정오 씨 등 13명의 회원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다수 회원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구성된 불교미술단체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봉 석정 스님의 '지장탱' 유전 불래 스님의 '석가모니 후불탱' 조정우의 '11년 42수관음도' 등 100

조각도 눈에 띈다. 허길량 씨의 '비천' 김광열 씨의 '아미타 삼존불감' 한봉석 씨의 '남양주 흥국사 목조광배' 등은 목조 미술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특히 한봉석 씨의 '목조광배'는 흥국사 대웅보전 부처님 광배를 재현했다.

6월13일 오후 6시 개막행사에서는 각 부문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며 전시기간 중 단청, 도금, 인경(탄본) 등 불교문화 체험행사도 개최된다. 일섭문도회 전연호 회장은 "우리나라 근대 불교미술사에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불모(佛母) 유성(有誠)스님의 화풍을 이어 그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오신 금호스님-보은스님-일섭스님이 계셨다. 이번 전시를 기회로 문도님들의 원력을 모아 첫 번째 회원전을 열게 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석정 스님의 '지장탱화도'

## 불교 종합예술 현충일에 8시간 걸쳐 시연

국태민안 기원하는 제 24회 봉원사 영산재  
일운스님 "영산재 상설 공연장 설립 큰 꿈"

"에앵이~어어어~이앵이~" 취타대의 사물소리에 맞춰 스님들의 범패소리가 장엄하게 들려왔다. 6월 6일 서울 신촌 봉원사 영불당 앞마당에는 대형 패불이 모셔져 있고 이를 중심으로 양측에는 12간지 그림과 복을 기원하는 글들이 걸려 있다. 시간대 별로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이 선보이는 바라춤과 나비춤 그리고 범고춤을 구경하고자 하는 관객들이 무대 주변을 에워쌌다.

889년 신라 진성여왕 3년에 창건된 천년 고찰 봉원사를 내리쬐는 따가운 햇살만큼 바라보는 이들도, 의식을 치르는 스님들도 열정적이면서도 화려했다. 현충일이 날 봉원사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성대한 불교의식 영산재(靈山齋)가 열렸다. 국태민안과 경제성장을 기원하는 24번째 영산재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여러 중생이 모인 가운데 범화경을 설교하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 영산재는 불교 음악인 범음범패(梵音梵唄)에 바라춤, 나비춤, 범고춤 등 무용적인 요소,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그린 패불, 감로팬화 등 미술적인 요소가 더해져 불교예술의 결정판으로 꼽힌다.

영산재 도량인 봉원사는 매년 단오절마다 영산재 시연회를 해오다 2007년부터 호국영령들의 혼을 기리기 위해 날짜를 현충일로 바꿨다.

올해 행사는 6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영혼을 모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 신촌 봉원사 영불당 앞마당에서 제 24회 봉원사 영산재가 마련됐다.

서오는 의식, 영혼이 불법을 듣기 전에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 등에 이어 패불을 영산재 장소에 옮겨 모시는 패불이운(掛佛移座) 의식 등이 펼쳐진다. 이후 영산재에 참석한 대중이 공양물을 나눠 먹으면서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는 의식, 부처를 공양하고 범문을 듣는 의식, 영혼을 보내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의식 등으로 마무리된다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장)은 "6월 6일 현충일에 지내는 연례행사는 이번이 24번째이지만 국가적인 큰 사건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영산재를 지내며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중요한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산재를 상설 교육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큰 발원"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제주 불교 기자 생활 10년을 담다"

이병철 기자 사진전...연결리서  
사부대중 신행기록 컷 전시



중국 사진전 구재구 장족 동자승들, 이병철 작

제주불교신문 이병철 기자가 '제주불교 10년, 그 안에서 나를 보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 연복로 연결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는 기자의 10년 간 기록을 담았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입사 후 찍은 수만 컷의 사진들을 옛 일기장을 꺼내듯 기억으로 더듬어 보았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루하루 새삼 잊었던 기억들이 나를 미소 짓게 한다"며 전시를 여는 소감을 밝혔다.

'스님과의 차 한잔' 이 불교언론에서 일하는 매력이라고 말하는 이 기자. 전시에서는 지난 10년동안 제주도 내 사부대중과

함께 한 아름다운 여행을 담았다. 지난 2004년 불교호스피스 설립지역에 그 꽃을 피워낸 수상 스님, 운누리에 등불을 밝히는 부처님오신날의 율령동삼삼사, 아열을 상귀리 극락사, 연동 선림사의 아름다운 전경, 연등축제에서 시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한마음선원 제주지부의 100일 간의 정염등 만들기 기도 현장, 매년 음력 1월 8일 성도제일이면 철야정진속의 제주불자들도 담았다. 정혜숙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군중특별교구**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증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젊은 장병 불자들의 포교 전담인 논산훈원소 호국연무사에 부처님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신축범당 대작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하여 1200분의 원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평화,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원불 모연불사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중교구장 자 광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일동 합장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 해군중장 원태호

원불 / 불사금 후원계좌번호

제일은행 325-20-221949	국민은행 477401-01-179603
농협 301-0063-3042-71	예금주 : 군중특별교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 ☎ (02)749-8646, 797-7266 / www.gunindra.com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 규격원조

설치가 편리한 고려형 후크

소형성취 인등 및 사리함

고추구 12B 인지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불룩 전선 10년  
5년

**불해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반도채르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균단연등(고리8)**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명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방형)  
▶ LED전구, DC 3V 백색·노랑·빨강  
▶ 병생, 탐들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